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22(금) ~ 2023.12.28(목)

제공일시 2023 01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22(금) ~ 2023.12.28(목)

제공일시 2024 01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미래 기술에 베팅... 캐나다, 최초로 미래 탄소배출권 매입

- 캐나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미래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음.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의 투자기관인 캐나다 성장기금(CGF)은 탄소 포집 스타트업인 엔트로피로부터 향후 15년간 매년 100만 미터 t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음. 미래 탄소배출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CGF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도 엔트로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t당 86.5캐나다달러(약 8만4500원)에 구입할 예정임. 매년 18만 5000t씩 매입함
- 시장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매입한 것이 사실상 보조금 정책과 같다고 평가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임. CGF는 이번 계약의 성격은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라고 해명했음

(한국경제 2023.12.21) 오현우 기자

### 2. 미 백악관, 청년 기후단 발족 위한 조치 발표

- 미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환경보존, 기후회복력 분야에서 수천 명의 청년 미국인들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프로그램인 '아메리칸 기후군단(American Climate Corps)'을 출범하기 위한 자금을 풀었다고 CNBC가 밝혔음
- 미국 기후단체인 ACC는 미 상무부, 내무부, 농무부, 노동부, 환경보호청 및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짐. 미국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의 기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식임
- ACC가 발표된 이후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5만명이 가입했고 내년 봄 신청할 포털이 출범할 예정임
- 행정부가 첫 번째로 삼는 목표 프로그램은 미 환경보호청의 '환경 및 기후정의 공동체 변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임

(CNBC 2023.12.19) 루카스 톨슨 기자

### 3. 일본 5조 원 투자, 중·테슬라는 공장 건설... '전기차 각축장' 된 태국

-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 태국에서 전기차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완성차를 가장 많이 생산·수출하는 국가임
- 지난 수십 년간 태국을 장악해 온 건 일본 자동차 업체로 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했음. 그러나 최근 2, 3년 새 태국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했음. 다른 나라 역시 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 우선, 글로벌 전기차 선두주자인 미국 테슬라의 태국 내 공장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동남아 공략에 속도를 내는 현대자동차 역시 방콕에 전기차 체험 공간 '아이오닉 랩'을 개관하며 현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전기차 관련 외국 기업에 △관세 인하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당근책을 제공하기로 했음

(한국일보 2023.12.27) 허경주 기자

## 1. 환경부, 2030년까지 국토 30% '국가보호지역' 지정... 생태관광 활성화

- 환경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 가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함.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국민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
-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 정부는 육상과 해양의 보호지역 비율을 2030년 30%까지 늘려 나갈 계획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 보호지역 지속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발굴을 강화함
- 또, 자연분야 보호지역(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의 신규 지정도 확대함. 지자체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함
-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과학적 관리기반도 마련함. OECM 발굴 및 자연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생물다양성(30by30) 파트너십(가칭)'도 구축함

(뉴스핀 2023.12.26) 정성훈 기자

## 2. 205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180조원 '빅뱅'

- 205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180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동향브리핑 936호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함. 이로 인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관련 시장은 15~2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만약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이 100% 이행될 경우, 동 시장 규모는 93~10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180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목표 달성을 가정한 결과임
- 이홍일 건설연 연구위원은 "전체 건축물의 97%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금융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음

(이지경제 2023.12.21) 최준 기자

(매일일보 2023.12.21) 이소현 기자

## 3. ESG 의무공시 닷 올랐다... "기업 지원대책 필요"

- 금융당국이 공시기준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본격 나섬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한다고 밝혔음. 300쪽이 넘는 최종 번역본에는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 도출 근거, 이를 지원하는 부속지침 등이 담겼음
- 회계기준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임
- ISSB가 내년에 발표하는 ISSB 기준에 관한 사례 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 및 유럽 재무보고자문 그룹(EU EFRAG)의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의 번역도 추진할 계획임

(이데일리 2023.12.27) 최훈길 기자

## 4. 광역형 분산에너지 지원사업... 정부 예산안보다 43억 늘어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이 광역형 분산에너지 지원사업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56억9500만원보다 43억500만원 증액된 100억원으로 확정돼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음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산단 입주기업의 RE100 경쟁력을 제고하고, 권역간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를 통해 RE100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인더스트리뉴스 2023.12.24) 이견오 기자

## 1. 다임러 수소연료전지 트럭 GenH2... 장거리 운송 테스트에 5개 기업 참여

- 글로벌 최대 상용차 제조업체인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이 수소연료전지 GenH2 트럭 출시를 앞두고 고객사 대상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수소연료전지 GenH2 트럭(Mercedes-Benz GenH2)은 2024년 출시를 앞두고 있음
- 다임러 트럭은 현재 테스트 랙과 공공 도로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 단계를 완료했으며, 수소연료전지 GenH2 트럭의 첫 번째 고객 시험 차량을 테스트하고자 한다고 전했음
- 글로벌 유통기업인 아마존(Amazon), 수소 생산 기업인 에어프로덕츠(Air Products), 영국의 글로벌 종합화학기업 이네오스(INEOS), 글로벌 친환경 건설자재 전문기업 홀심(Holcim), 물류서비스 기업인 비드만 & 윈츠(Wiedmann & Winz)이 수소연료전지 트럭을 이용한 CO2 없는 장거리 운송에 대한 첫 번째 고객 시험에 참여할 예정임
- 이는 건축 자재, 해상 컨테이너 또는 실린더 가스 운송과 같은 독일의 특정 경로에서 다양한 장거리 운송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임팩트온 2023.12.26) 유미지 기자

## 2. 에어프랑스-KLM그룹, 지난해 지속가능 항공연료 최대 사용기업

- 에어프랑스-KLM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총 생산량의 17%를 사용했다고 밝혔음
- 같은 기간 일반 항공유의 경우 총 생산량의 3%를 소비했음.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AF 최대 사용 기업이라는 영예를 이어가게 됨
- 에어프랑스-KLM그룹은 지난 2022년 세계 최대 SAF 사용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이데일리 2023.12.21) 박민 기자

## 3. 테슬라, 상하이에 메가팩 ESS 공장 건립 나서... 부지 계약 체결

- 미국 전기차(EV) 제조사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연간 1만 대 생산 능력의 메가팩(Megapack) 배터리 공장을 건립키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 각 매체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상하이 당국과 린강(臨港) 자유무역구(FTZ) 내의 약 20ha(6만 평)에 달하는 메가팩 배터리 공장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음
- 테슬라는 자사 차량을 생산하는 기가팩토리 인근의 이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내년 1분기 착공, 내년 4분기 중 완공해 수출 위주의 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딜라이트닷넷 2023.12.23) 박피터슨 기자

## 4. 폭스콘, 인도 정부에 반도체 공장 설립 신청

-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홍하이 정밀공업)이 인도 정부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신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음
-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IT 담당 부장관이 최근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대만은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 2023.12.26) 문정현 기자

## 5. “중국 전기차 BYD, 수십억 유로 투자 헝가리 공장 건설”

- 중국 전기차 BYD가 헝가리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해 새 공장 건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 시간) 보도했음
- FT에 따르면, BYD는 남부 세계드의 새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임
- BYD는 이미 헝가리에 버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대 말까지 유럽 전기 자동차 산업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BYD가 자동차 공장설립을 본격화했다고 FT는 전했다

(뉴스1 2023.12.22) 신기림 기자

## 1. SK에너지, 국내 바닷속 탄소 저장소 발굴한다

- SK에너지가 한양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과 국내 주변 해역에서 이산화탄소(CO2) 저장소 발굴에 나섬
- SK에너지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한반도 권역별 종합 2D·3D 물리탐사 및 전산재처리를 통한 상용화급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한반도 CO2 저장소 확보)’ 국책과제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음
- 한반도 CO2 저장소 확보 국책과제는 한반도 주변에 동해, 서해, 남해 해역을 탐사해 이산화탄소를 어느 지역에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프로젝트임
- SK에너지는 지난 40년간 축적된 원유탐사 기술 역량을 활용해 CO2 저장소 선정 기준을 수립할 예정임

(조선일보 2023.12.26) 권유정 기자

## 2. HD현대 친환경 ‘메탄을 이중연료 추진 개조’ 사업 추진

- HD현대그룹의 HD현대마린솔루션이 친환경 탈탄소 ‘메탄을 이중연료 추진 개조’ 사업에 나섬
- 25일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한국선급(KR),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이엔티와 공동개발 프로젝트(Joint Development Project) 형식으로 수행한 ‘메탄을 이중연료 추진 개조 설계’가 한국선급으로부터 기본 인증(AIP)을 획득했다고 밝혔음
-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이 운항 중인 1만6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과 기본설계 작업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했음

(중소기업신문 2023.12.25) 김성화 기자

## 3. 원유를 직접 연료 전환하는 ‘저탄소 TC2C’... ‘신기술’로 다가서는 넷제로

- 에쓰오일이 지난달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TS&D)센터를 준공하고, 현재 울산에 건설 중인 사힌(아랍어로 ‘매’라는 뜻) 프로젝트에 적용할 석유화학 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TS&D센터는 사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오는 2026년 이후 양산되는 올레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에쓰오일은 TS&D센터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사힌 프로젝트의 기술 경쟁력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화일보 2023.12.21) 김성훈 기자

## 4. 신한울 3·4호기 계약 서명식... 현대건설 “시장 확대 총력”

-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를 수주하며 원자력 밸류체인 구축과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 공사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에 14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임. 총 사업비는 3조1000억원 규모이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15개월임
- 현대건설은 두산에너지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함

(포스트저널 2023.12.25) 송신용 기자

## 5. SGC이테크건설, 사우디서 6500억원 규모 에틸렌·프로필렌 EPC 수주

- SGC이테크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화학 기업 SEPC로부터 5억달러(한화 약 6537억원) 규모의 에틸렌·프로필렌 생산 설비 증설 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접수해 EPC Contractor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음
-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1 산업단지에 있는 에틸렌·프로필렌 설비의 연간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임
- SGC이테크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EPC(설계·구매·시공) 등 공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수행함

(매일일보 2023.12.25) 권영현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2.22(금) ~ 2023.12.28(목)

제공일시 2024 01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백악관, 청정수소 세액공제 지침 발표... “환경단체 판정승”

- 22일(현지 시각)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청정수소 세액 공제(45v) 지침을 발표했음
- 이번 지침의 핵심은 혜택의 차등화임.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를 1kg당 0.6달러(약 779원)에서 3달러(약 3897원)까지 4단계로 나눈 것임
- 새로운 지침은 향후 60일간 공청회 등 업계 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청정수소 세금공제는 IRA가 제공하는 최대 규모 보조금 정책 중 하나로, 생산된 청정수소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함.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이 걸린 ‘적격 청정수소’의 조건을 두고 업계 내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온 바 있음
- 쟁점은 청정수소의 범위임. 그간 환경단체 등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반면, 에너지업계는 천연가스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해 만드는 블루수소나 원자력을 활용한 핑크수소 등도 청정수소로 인정, 아직 초기단계인 수소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임
- 결과적으로 백악관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임
- 이번 지침에는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적격 청정수소 △적격 수소 생산시설 등 법안 내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수소 생산공정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세액공제 지침이 포함돼 있음
- 4단계의 공제 지침을 살펴보면, 그린수소만이 1kg당 3달러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소생산업체가 가장 높은 혜택을 받으려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가동한 지 3년 이내여야 함. 2028년부터는 친환경 전력 사용 여부를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함. 2027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연간 매칭’이 허용됨
- 한편, 미국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수소산업을 죽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 에너지업계는 날씨 등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전원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화석연료 전력을 쓸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정책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백악관이 이번 지침에서 2028년부터는 청정전력 사용을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임
- 이에 미국 청정전력협회(ASP) CEO 제이밋 그루멧은 성명을 발표하고 “시간별 매칭 규정 등은 대부분의 기업이 수소생산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지적했음

(임팩트는 2023.12.28) 이재명 기자